

# 현대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에 관한 연구

박 정 은\*(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의 유행 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현대 웨딩드레스의 특성과 패션 디자이너들의 웨딩드레스를 통해 나타나는 유행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웨딩드레스의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이론적인 접근과 연구를 시도함과 동시에 현대 신부들의 다양한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웨딩드레스는 고대의 단순한 드레이퍼리 형으로 정숙성의 강조함과 동시에 균형 잡힌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시작으로 하여 중세 초기에는 금욕적인 기독교의 영향으로 온몸을 감싸는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며, 왕족과 귀족의 드레스는 주로 가문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다. 후기에는 인체에 대한 자연성, 고결성, 세속성을 부여하여 큰 머리와 작은 가슴, 큰 배를 강조하였고, 타이트한 소매의 꼬따르디에 트레인이 장식되기 시작했다. 근세에는 현세적인 미의식으로 말미암아 배와 엉덩이를 강조하였으며, 이 시대의 독특한 슬래쉬나 러프 칼라 등이 웨딩드레스의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었다. 근대는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보다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가 중시됨으로써 웨딩드레스 그 자체의 미적 형식을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19세기 중엽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시대사조에 따라 패션 경향에 충실하면서 20세기까지 그 일관된 양식미를 전해 주고 있다.

2. 현대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이미지로는 순수성, 관능성, 유희성, 역사성 이 4가지로 집약된다. 즉, 순수성은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로써 정숙성을 강조하며, 관능성은 순수성과 대조적 이미지인 비정숙성을 강조한 것으로 현대 웨딩드레스의 가장 큰 특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유희성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웨딩드레스에 대한 반고전주의적인 특성으로써 비현실적인 감흥과 비인간적인 소외의

세계에서 비롯되어진 의외성 강한 아방가르드한 요소를 통해서 표현된다. 역사성은 복고적인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되어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되었다.

위와 같은 현대 웨딩드레스의 4가지 이미지에서 정숙성과 비정숙성, 엄격함과 비엄격함,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적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20세기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웨딩드레스도 결국 패션과 맞물려 유행한다고 볼 수 있다.

3. 현대 웨딩드레스의 대표적인 실루엣은 볼 가운 스타일, 시스 드레스 스타일, 프린세스 라인 스타일, 엠파이어 드레스 스타일, 슈트 드레스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고, 색상은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황색, 적색이 주로 입혀졌으나, 16세기부터 흰색이 종교의 영향으로 순수의 상징으로 받아지기 시작하여 왕족 및 귀족층에서 착용되어 오다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였으며 거의 정착된 시기는 1920년대부터였다. 따라서 현대에는 아이보리색을 포함한 흰색 계열이 절대적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된 소재로는 실크류, 면과 리넨, 레이스 등으로, 이러한 소재의 특성들은 웨딩드레스의 실루엣과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패션 디자이너들이 발표한 웨딩드레스를 통해 각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패션 철학을 근거로 순수성, 관능성, 유희성, 역사성이라는 웨딩드레스의 이미지를 단일하게 혹은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세계 웨딩드레스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과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